

## 광야의 순례 길에서 만난 우리의 “평화” 이야기

<사단법인 평화드림포럼(대표 은희곤 감독님)>이 주최하고 감신대, 협성대, 고려대, 배화여대, 상명대, 중앙대, 한국성서대에서 선발된 학생들이 함께 한 “평화드림 5만리” 여정이 2023년 07월07일 인천국제공항에서 해단식을 가지며 대장정의 막을 내렸다. 2023년 06월 25일 출국 하였지만, 우리의 시작은 01월27일 감신대에서 열린 발대식이였다. 발대식에서 은희곤 감독님은 “한반도 평화는 사람에게 주목하면 아무것도 못한다. 한반도 평화는 철저하게 하나님을 주목해야 한다. 평화는 분쟁지역의 평화, 모든 것이 포함된다. 우리는 민족의 6.25를 기억하되 우리 민족의 꿈과 하나님의 마음을 함께 나누며 평화의 일꾼과 화해의 전달자가 되자!” 라는 메시지를 우리 “평화드림 5만리” 팀에 던지셨다. 이후 출발하기 전 6월까지 매달 모여서 예배를 드리며 여정을 준비하는데 참 신기한 모임이라 생각이 들었다. 매달 모임을 하고, 또 모임을 해도 항상 새로웠다. 매번 모임에 새로운 사람을 소개해야 했으며, 서로가 서로를 잘 알지 못하는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 마치 하늘에서 내린 눈은 많은데 전혀 멍쳐지지 않은 느낌이라고 할까? 정말이지 우리 팀의 영원한 우유빛깔 감독님 말씀 따라 ‘철저하게 주님만 바라보는 것이 답이구나!’ 생각하며 여정을 출발하게 되었다.

### 1. 위기가 속에 하나 됨...

우리는 길고 긴 비행시간을 통하여 도착한 곳은 네델란드의 암스테르담이다. 이준 열사 기념교회 최영목 목사님의 반가운 환영 속에 안내를 받아 나치를 피해 유대인들을 집에 숨겨주었던 ‘코리 텐 붐 하우스’, 25개월간 나치를 피해 숨어 살았던 ‘안네의 집’, 암스테르담 시청사 앞 ‘담’ 광장에서의 평화의 노래를 하며 첫날을 마쳤다. 그리고 그 다음 날 “평화드림 5만리” 순례단에 위기가 찾아온다. 긴 비행과 첫 날의 암스테르담 순례 여정으로 자연스럽게 깊은 쉼을 얻은 우리 팀은 아침식사를 하게 된다. 식당의 안쪽에 자리를 잡고 음식을 가져오는데, 전날 암스테르담에서부터 우리 팀을 따라 온 것으로 추정된 한 남자가 감독님과 사모님의 가방을 가져 간 것이었다. 순간 우리 팀은 일사분란 하게 움직이기 시작한다. 용의자로 여겨지는 사람의 사진이 단톡 방에 올라오며 직원들에게 신고하고 경찰이 방문하고, 화장실 칸칸이 뒤지며 팀을 짜서 버스 출발 전에 호텔 주변의 쓰레기 통을 살펴보는 등 놓고 간 여권이나 가방이 있는지 찾아 나선다. 이번 순례 여정에 우리를 이끌어 주셨던 익투스 여행사의 서나영 장로님을 비롯해서 우리 모든 팀원들이 당황해 할 때, 감독님과 사모님은 오히려 우리를 안심시키며 “우리 팀 안에 누군가가 당할 일이었으면 차라리 우리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 더 낫다! 아이들에게 이런 일이 있으면 멘붕이 오지!” 말씀 하시며 오히려 우리를 안심시키신다. 그 날에 우리 팀 안에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한다. 출발하는 버스 안에서의 경건회를 통한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만 바라보는 예배, 너와 나 할 것 없이 팀을 생각하며 자발적인 움직임과 적극성 그리고 서로를 향한 배려와 사랑 그리고 감독님 부재로 인한 각자 맡은 일들에 대한 책임감 발동은 “평화드림 5만리” 팀이 하나 되는데 큰 동력이 되었다. 우리 “평화드림 5만리” 팀은 위기 가운데 하나 됨을 경험하며 평화 순례길의 묘한 공동체로 변모해 가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 2.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한 몸 됨의 범위는?

우리 “평화드림 5만리”팀은 이준 묘적지를 방문하여 이준을 추념하며 협성대의 존경하옵는 서영석 교수님의 인도로 참배 행사를 가졌다. 특별히 이 행사에서 추모설교는 감신대에 사랑하고 존경하는 유경동 교수님이 말씀을 전하셨는데, 교수님의 메시지는 우리 팀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기에 충분하였다. 10년 전 부산에서 있었던 전 세계적인 회의에 참여한 교수님의 이야기를 전 해 주셨다. 교수님은 말씀 중에 “전 세계가 함께 모여서 나름 기쁘고 즐거운 축제가 될 것이라는 기대하였는데, 축제의 예배가 아닌 하나같이 다 착 가라앉은 우울한 예배였다”는 것이다. 이는 예배 때마다 대전제가 있었는데, 그것은 실제 예배마다의 각 나라와 민족들의 소재였던 상처, 아픔과 고통이었다는 것이다. 그런 컨퍼런스에서 마지막 날에 가진 어느 세미나 중에 장로교 계통의 교수님이 “여러분 몸의 중심은 어디입니까?”를 질문했고, 그 답은 “아픈 곳”이라고 이야기 했다고 하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란 무엇인가? 하나님의 일은 초월적인 신비한 일이 많다. 예수님이 하늘 영광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것도 놀라운 신비지만, 부활 승천 하셔서 하나님의 보좌 옆에 계신 그가 이 땅에 유일한 몸을 두셨는데, 그것이 바로 교회인 것인 것도 신비스러운 일이다. 교회는 예수님의 몸인 것이다. 그리고 교회는 인류를 위해서 존재 할 때에 참된 교회라 할 수 있다. 그 이유는, 예수님 사랑은 믿는 자들만을 위해서만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 온 인류와 온 세상 사람들을 위한 그분의 보편적인 사랑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예수님을 머리로 하는 한 몸 됨은 믿는 자들에게만 제한적이며 국한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있는 신의 백성들 모두를 의미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순례 중에 문득 그런 생각이 든다. 한 사람에게 있어서 몸은 흔히 “5장 6부”라고 이야기 하며, 또한 전 세계를 일컬어 “5대양 6대주”라고 말하기도 한다. “5장 6부”와 “5대양 6대주” 뭔가 같은 공식 같기도 하다. 한 몸 됨의 형성에 있어서 보이는 몸인 손과 발과 머리와 허리 등의 몸과, 보이지 않는 몸인 조직과 세포와 뼈마디와 혈관 등으로 몸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전 세계는 마치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으로 이루어진다. 몸의 관점에서 “5대양 6대주”인 전 세계와 열방을 하나의 몸으로 본다고 할 때에, 그렇다면 몸의 중심은 과연 어디일까? 존경하고 사랑하옵는 유경동 교수님의 말씀 따라서, 그것은 분명 몸의 “아픈 곳”일 것이다.

## 3. 하나님의 초월적인 높이에서 포월적인 깊이의 전환으로 다가온 평화

우리가 사는 한 번뿐인 인생, 이 땅에서 나그네와 같이 순례의 여정을 하는 동안에 존재의 기반(The Ground of our being)은 “삶의 중심”에 있는 깊이에 있다고 이야기들 한다. 필자는 그 ‘삶의 중심’은 ‘몸의 중심’이라 생각하며 그 몸의 중심은 ‘아픈 곳’이라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든다. 최근에 철학적인 용어로 재미있는 단어를 만났는데, 그것은 ‘포월’이라는 단어이다. 포월이란, “품고 안고서 넘는다”는 의미가 담겨 있는데, 철학계에서는 ‘초월’에 맞서는 개념으로 일반적으로 “기어 넘다”라는 뜻으로 쓰이며, 개인적인 경우로 사용할 때 “껴안으며 넘다”의 뜻을 지니기도 한다. 우리 “평화드림 5만리” 팀은 이번 순례의 길에서 마치 ‘포월’하는 평화의 이야기를 많이 만나는 듯하다.

네델란드 최초의 시계 제조공 자격을 갖게 되지만 나치를 피해 온 유대인들을 집에 숨겨주었다가 밀고에 의해 수용소에 갇힌 코리 가족, 25개월간 안네의 가족들을 숨겨 주었던 이들, 당시 많은 이들이 진정한 평화와 핍박 당하는 이웃을 위하여 기꺼이 포월하며 희생을 감수했다. 1907년 제2회 만국평화회의가 열렸던 이곳 헤이그에 이위종(당시 썩 페테스부르크 한국공사관 서기관. 당시 20세), 이상설(전 부총리. 당시 37세)과 함께 고종의 특사로 파견된 이준

(전 대한제국 최고 재판소 예심판사, 검사. 당시 48세)은 나라의 주권을 일본에 넘긴 을사늑약의 무효를 선언하고 일본의 조선 침탈의 부당함을 전 세계에 알리려 했으나 일제의 간교한 기만과 방해와 당시 만국평화회의 의장국인 러시아 황제의 훈령을 받은 러시아 대표가 입장을 거부하여 회의장에 입장도 하지 못했다. 이에 이준 열사는 “왜? 대한민국을 제외시키는가?”라는 호소문을 발표하며 우리 민족의 아픈 몸과 함께 포월 한다. 또한 순례 여정 중에 터키의 지진을 함께 아파하며 100만 명의 난민을 수용한 독일의 포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 중에 우크라이나의 100만 명의 난민을 받은 폴란드의 포월은 우리 “평화드림 5만리” 공동체에 “진정한 평화의 실재”에 대하여 도전을 주었다.

#### 4. 지극히 작은 자와 지극히 작은 나라를 통하여 진정한 평화의 예수님을 만나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25장의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의 실재를 만나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말씀하신다.

- 42 내가 주릴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 43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에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 44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주리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 45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리니 (마25:42-45)

제자들은 의아해 했을 것이다. 예수님이 줄 곳 제자들과 함께 있었는데 언제 옥에 갇혔는 말씀인가? 예수님은 지극히 작은 한 사람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라 말씀하신다. 한 몸 된 그리스도의 몸에서 지극히 작은 자에게 먹을 것을 준 것은 예수님께 먹을 것을 준 것이고, 지극히 작은 자를 영접한 것은 예수님을 영접한 것이며, 옥에 갇힌 작은 자를 돌 본 것은 옥에 갇힌 예수님을 돌 본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예베라 정의 할 때, 우리가 일반적으로 초월적이라 여기고 있는 예수님의 실재를 만나는 것은 지극히 작은 자의 얼굴을 보는 것이며, 그와 함께 대화 하는 것이다.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시고 싶은가? 그렇다면 지극히 작은 자인 우리 몸의 아픈 곳으로 찾아가서 그와 함께 더불어 먹고 마시며 함께 대화하고 교제(koinonia)하라. 초월적이라 인식하였던 예수님을 실재가 되어 만날 것이다. 종교적이며 신화적이며 초월적인 예수님으로 만났던 모든 경계선은 무너지고 우리와 함께 품으시고 안으시고 넘어가는 예수님을 만나게 될 것이다.

우리 “평화드림 5만리” 공동체는 네덜란드 암스텔담에서 동쪽으로 총연장 길이 2,200km를 달리며, 평화노래 버스킹, 한반도와 우크라이나 평화지지 서명받기, 평화활동 SNS올리기, 우크라이나 전쟁 난민을 위한 구호물품 전달 등의 행사를 펼친 뒤 비엔나의 UN 유럽 오피스를 방문해 유럽인 1000여명의 평화지지 서명이 담긴 서명지를 전달했다. 서명지에는 13개국의 언어로 “나는 한반도와 우크라이나의 평화를 지지합니다”라는 문구가 담겼다. 우리는 2주 안 되는 일정에 함께 울고 웃으며, 먹고 마시며 평화의 예수님과 함께 하는 순례의 여정을 하였다. 우리 “평화드림 5만리” 팀은 우리 민족의 가장 아픈 역사의 몸과 포월하며, 각 유럽 나라와 도시들의 아팠던 몸과 포월하고, 특별히 우리 한민족과 우크라이나의 분단과 전쟁 중인 아픔과 포월하며 평화의 일꾼이자 평화의 대사의 일을 감당하였다.